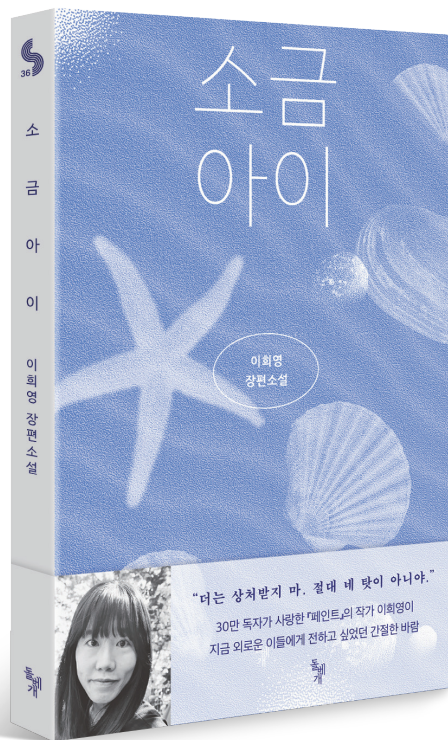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수업 지도안



## 소금 아이

작성자 : 위례고등학교 교사 최은영

| 단계   | 차시  | 활동 내용                                                                     |
|------|-----|---------------------------------------------------------------------------|
| 읽기 전 | 1   | <b>생각 열기</b><br>— 소설의 제목과 관련한 마인드맵 활동<br>— 작품 속에 드러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배경지식 파악하기 |
| 읽기 중 | 2   | 인물 파악하기                                                                   |
|      | 3~6 | 내용 파악하기<br>공감하기<br>적용하기                                                   |
| 읽기 후 | 7   | 작품 감상하기                                                                   |
|      | 8   | 생각 나누기                                                                    |
|      | 9   | 모의 재판하기                                                                   |

각자 저마다 아픔을 지닌 인물들이 서로를 기꺼이 돌보며 울타리가 되어 주는 과정을 그린 『소금 아이』는 양육자의 방임으로 보호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무책임한 양육자마저 잃지만, 혈연이 아닌 할머니와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이수’의 이야기이다. 해당 독서지도안은 중학교 수준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지도안이다. 독서 수업을 ‘읽기 전-읽기 중-읽기 후’ 단계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 후 주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먼저 [읽기 전] 단계에서는 ‘생각 열기’ 활동을 통해 작품의 제목과 연계한 ‘소금’이라는 단어를 통한 마인드맵 활동과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익광고를 활용하여 생각해 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읽기 중] 단계에서는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등장인물 파악하기, 인물이 처한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가족의 의미 생각해 보기, 등장인물의 이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기, 인물의 행동에 공감하기’ 등 작품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작품 속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 사건의 전개, 배경 등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읽기 후] 단계에서는 작품 전체의 내용에 대한 감상 활동 후 모둠별 주제 토의하기, 모의 재판하기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고,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서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 | 1차시 | 생각 열기

1. 책을 읽기 전에 『소금 아이』라는 제목에 대해 생각해 보자. ‘소금’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맛, 특징, 기능 등)을 자유롭게 써 보자.

소금

2. 학교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익광고를 보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학교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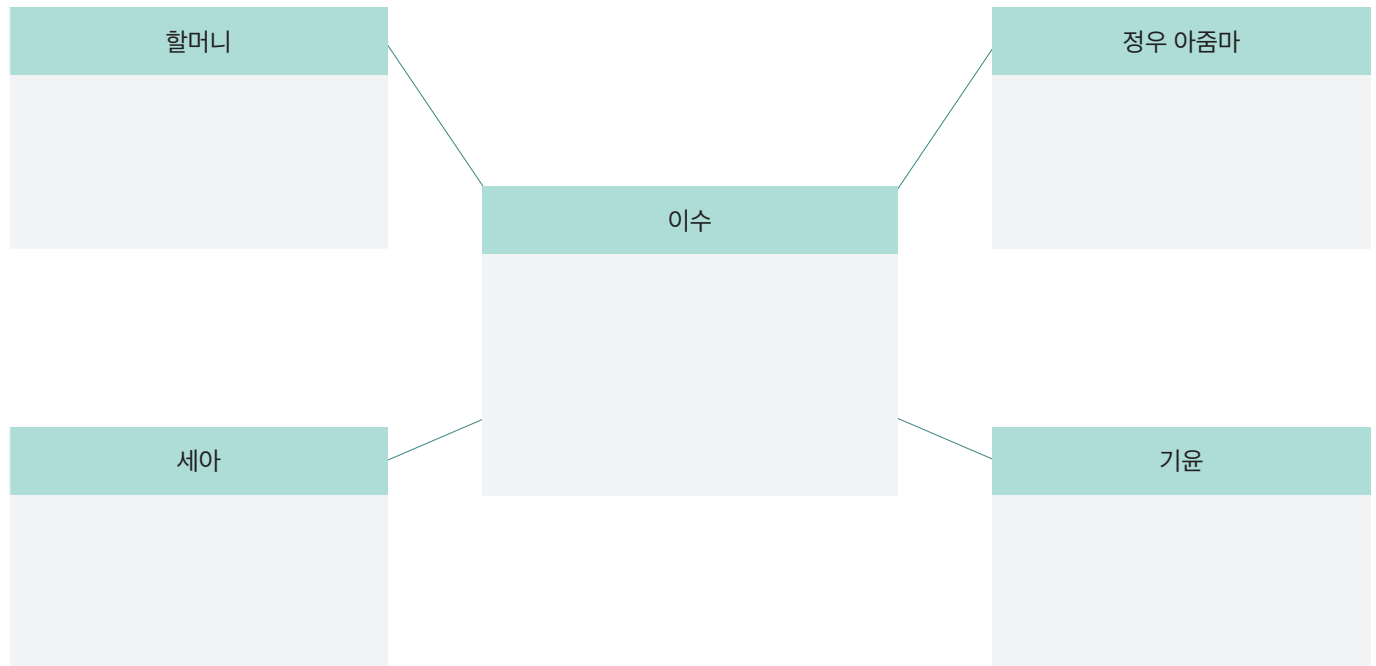
디지털 성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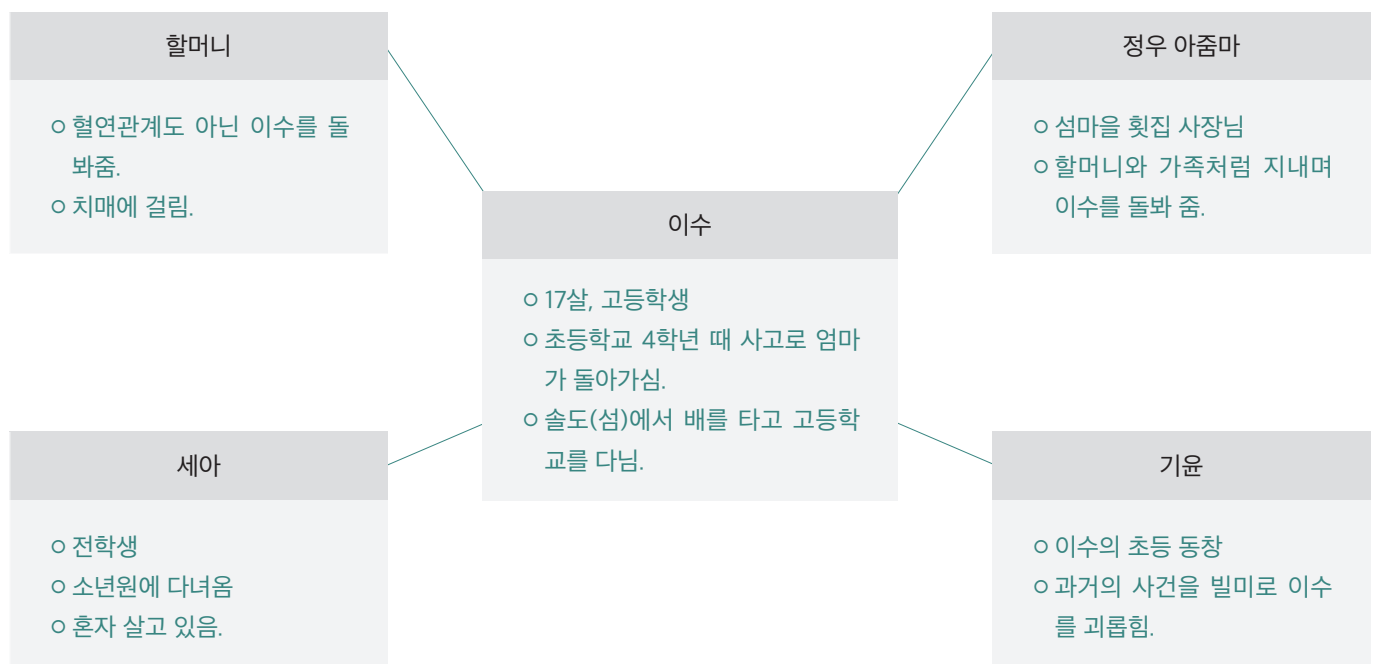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협의회 [www.kobaco.co.kr](http://www.kobaco.co.kr)

## | 2차시 | ① 인물 파악하기

1. 작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인공 ‘이수’를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 상황을 정리해 보자.



(예시)



## | 3~6차시 | ② 내용 파악하기, 공감하기, 적용하기

1. 작품 속 등장인물 중에서 다음 밑줄 친 ①과 ②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인물의 예를 더 찾아보자.

이수는 문득 인간을 떠올렸다. 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고, ②다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 192쪽

| 인물                 | 소설 속 인물/이유 | 우리 사회 속 인물/예 |
|--------------------|------------|--------------|
| ①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 |            |              |
| ② 많은 이들을 돕는 사람     |            |              |

(예시)

| 인물                 | 소설 속 인물/이유                                                                                                                                                                                        | 우리 사회 속 인물/예                                                                                                        |
|--------------------|---------------------------------------------------------------------------------------------------------------------------------------------------------------------------------------------------|---------------------------------------------------------------------------------------------------------------------|
| ①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머니의 아들</li> <li>— 할머니에게 끈질기게 돈을 요구함.</li> <li>—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름.</li> <li>○ 갈빗집 사장</li> <li>— 성범죄를 저지름.</li> <li>—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세아를 궁지에 몰아넣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li> <li>○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기꾼</li> </ul>     |
| ② 많은 이들을 돕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머니</li> <li>— 혼자 남겨진 이수를 돌봄.</li> <li>— 타인의 잘못까지 대신 책임짐.</li> <li>○ 세아</li> <li>— 이수가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 주고, 도와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관</li> <li>○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li> </ul> |

2. 소설 속 등장인물인 ‘이수’와 ‘세아’의 상황을 살펴보고, 두 사람이 처한 현실 문제의 공통점을 파악해 보자.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수’와 ‘세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

| 인물 | 상황 | 현실 문제의 공통점 |
|----|----|------------|
| 이수 |    |            |
| 세아 |    |            |

○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수’와 ‘세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사회:

학교:

(예시)

| 인물 | 상황                                                                                                                                                                                                   | 현실 문제의 공통점                                                                                                |
|----|------------------------------------------------------------------------------------------------------------------------------------------------------------------------------------------------------|-----------------------------------------------------------------------------------------------------------|
| 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어린 시절 보호자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함.</li><li>— 비극적인 사고를 목격함.</li><li>— 어머니의 죽음 이후 공황 증상이 나타남.</li><li>— 자신을 돌봐주던 할머니가 치매에 걸림.</li><li>— 초등 동창인 기윤이의 학교 폭력에 시달림.</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호자의 돌봄 부재</li><li>— 외로움</li><li>— 가족 또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li></ul> |
| 세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모의 불화로 돌봄을 받지 못함.</li><li>— 친구가 세상을 떠남.</li><li>— 폭행 사건으로 소년원을 다녀옴.</li><li>— 전학 간 고등학교에서 과거에 얹힌 소문이 퍼짐.</li></ul>                                          |                                                                                                           |

○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수’와 ‘세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 사회: 아동 보호 전문 행정 기관인 아동 복지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보호자가 없는 이수과 가정이 해체된 세아에게 일시 보호나 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상처가 큰 이수과 세아에게 지속적인 상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다.
- 학교: 기윤이 더 이상 이수를 괴롭히지 않도록 주변의 학생들은 방관하지 않고, 교사에게 상황을 전달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잘못된 소문으로 세아가 상처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한다. 주변에 이수나 세아처럼 힘든 친구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공감이나 위로의 말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평소에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한다.

3. 다음 ‘가족’과 ‘식구’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고, 제시된 시에서 ‘식구’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그리고 이수과 세아의 대화를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 가족(家族)

「명사」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 식구(食口)

「명사」

「1」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

「2」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사무실 식구.

이제 우리 회사 식구가 되었으니 앞으로 잘해 봅시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매일 함께 하는 식구들 얼굴에서  
삼시 세 끼 대하는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때마다 비슷한 변변찮은 반찬에서  
새로이 찾아내는 맛이 있다

간장에 절인 깻잎 젓가락으로 집는데  
두 장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다시금 놓자니 눈치가 보이고  
한 번에 먹자 하니 입 속이 먼저 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나머지 한 장을 떼 내어 주려고  
젓가락 몇 쌍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이런 게 식구이겠거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내 식구들의 얼굴이겠거니

— 유병록, 「식구」

위 시에서 말하는 ‘식구’의 의미는?

(예시)

— 위 시에서 말하는 ‘식구’의 의미는?

말하지 않아도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고,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배려심을 가진 존재들이다.

“네 걱정 많이 하셨어. 좋은 분이더라. 네가 둘째 아들이라던데?”

바다에 점점 더 어둠이 내려앉았다. 세아가 가슴 깊숙이 바람을 들이켰다.

“그런 분이 가까이 있어서 좋겠다.”

아줌마와 할머니, 그리고 이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였다. 가족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수는 생각했다.

“유전자 따위 별거 아니더라.”

— 214쪽

가족은

이다.

왜냐하면,

(예시)

가족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강화되고 이해와 배려심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고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다음은 ‘이수’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한 ‘어머니, 이수, 세아’의 생각이다. ‘이수’의 동음이의어 중 등장인물의 삶과 관련하여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쓰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보자

|                      |                                                                                                                                                                                                                                                                                                                                                                                                                                   |
|----------------------|-----------------------------------------------------------------------------------------------------------------------------------------------------------------------------------------------------------------------------------------------------------------------------------------------------------------------------------------------------------------------------------------------------------------------------------|
| <p>‘이수’라는 이름의 의미</p> | <p>그것이 이수가 ‘이수’가 된 이유였다. 출생 신고를 하러 간 날이 하필 수요일이라서. 달력에 물 수(水) 자가 보여서……. 어쩌면 ‘이월’이 될 수도 있었고, ‘이화’나 ‘이목’, ‘이금’이 됐을 뻔했는데 가장 무난한 ‘이수’가 되었다니. 엄마의 말처럼 다행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u>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물밖에 없는 외딴 섬에서 살게 된 걸까?</u> — 41~42쪽</p> <p>“그런데 네 이름. ‘수’도 한자 맞지? 무슨 뜻이야?”<br/>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다. 이수가 무심한 목소리로 답했다.<br/>         “수요일 할 때 수.”<br/>         “그럼 물 수(水)?” 되물으며 세아가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긁적였다.<br/> <u>“뭐 바닷가에 사니 어울리긴 하네.”</u> — 215쪽</p> |
| <p>‘이수’의 동음이의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수(履修): 해당 학과를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침.</li> <li>— 이수(利水): 물을 잘 이용함.</li> <li>— 이수(泥水): 흙이 풀리어 몹시 흐려진 물.</li> <li>— 이수(離水): 수면에서 떠 올라감.</li> <li>— 이수(李樹): 장미과의 낙엽 활엽 교목.</li> <li>— 이수(移囚): 죄수를 다른 곳으로 옮김.</li> </ul>                                                                                                                                                                              |

‘이수’의 삶과 관련하여 내가 선택한 동음이의어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



---

내 이름은? / 내 이름에 담긴 의미는?

---



---

내가 새롭게 해석한 내 이름의 의미는?

---



---

(예시) — ‘이수’의 삶과 관련하여 내가 선택한 동음이의어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수(泥水): 흙이 풀리어 몹시 흐려진 물.

이유: 이수의 힘들고 고된 삶이 흐린 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5.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수는 6년 전 흐릿하게 남아 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그 후 경찰서로 간 이수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자.

“그 사건, 범인 우리 할머니 아니야.”

“.....”

“진짜 아니야.”

“너 어디 아프냐?”

“자세한 건, 너희 삼촌한테 들어.”

이수가 전화를 끊었다. 지잉지잉 울리는 진동을 모르는 척하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다. 거기엔 할머니의 편지도 들어 있었다. 어느덧 짙은 어둠이 사라지고 사위는 환한 아침 햇살로 가득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이수가 건널목 너머 경찰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 224~225쪽

| 만약 내가 '이수'라면? |                                   |                                       |
|---------------|-----------------------------------|---------------------------------------|
| 선택            | <input type="checkbox"/> 경찰서로 간다. | <input type="checkbox"/> 경찰서에 가지 못한다. |
| 이유            |                                   |                                       |

(예시)

| 만약 내가 '이수'라면? |                                                                                                                                          |                                                                                                                                               |
|---------------|------------------------------------------------------------------------------------------------------------------------------------------|-----------------------------------------------------------------------------------------------------------------------------------------------|
| 선택            | <input type="checkbox"/> 경찰서로 간다.                                                                                                        | <input type="checkbox"/> 경찰서에 가지 못한다.                                                                                                         |
| 이유            | 나는 이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기억이 돌아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달았는데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다면 평생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갈 것이다. 따라서 나도 이수처럼 경찰서에 가서 죄를 말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다. | 나는 이수처럼 행동할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도 무섭다. 그리고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바로잡을 용기도 없다.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아픈 할머니를 돌볼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

## | 7차시 | ① 작품 감상하기

|                                          |                    |      |
|------------------------------------------|--------------------|------|
| 1.<br>줄거리                                |                    |      |
| 2.<br>기억에 남는 내용<br>/ 공감한 내용<br>+ 그 이유    | 기억에 남는 내용 / 공감한 내용 | 그 이유 |
|                                          | ①                  |      |
|                                          | ②                  |      |
| 3.<br>책을 읽으며<br>깨닫게 된 점                  |                    |      |
| 4.<br>책을 통해 작가가<br>말하고자 하는 바<br>(작품의 주제) |                    |      |

## | 8차시 | ② 생각 나누기

1. 이 소설에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 있다. 다음 중 친구들과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골라 실태, 상황, 문제점, 해결 방안 등 다양한 생각을 나눠 보자.

- ① 경제적인 여건, 가정의 해체,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늘어 간다.
- ②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 훼손,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 등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 ③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촬영 및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  |
|-----------|--|
| 토의 주제     |  |
| 모둠원       |  |
| 나의 생각     |  |
| 모둠원1      |  |
| 모둠원2      |  |
| 모둠원3      |  |
| 활동 후 느낀 점 |  |

| 9차시 | ③ 모의 재판하기

1. 소설의 결말에서 경찰서로 간 이수가 법정에 섰다고 가정해 보자. 할머니의 말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한 후, 검사와 변호사의 입장을 살펴보자.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되어 이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자.

“아니다. 절대 아니야. 그 어린것은 그냥 바닥에 떨어진 칼을 치우려 했다. 무서웠겠지. 제 어미가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왜 아니겠냐? 쥐고만 있었다. 그래, 손에 쥐고만 있었다고. 그런데 네가 술에 취해 휘청거렸어. 내가 넘어지는 너를 붙잡지 못했다.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그 어린게 뭘 알겠니.”

— 199쪽

| ‘이수’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                                                                                                                                                        |
|-----------------|--------------------------------------------------------------------------------------------------------------------------------------------------------|
| 검사의 입장          | 재판장님, 할머니가 이수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려 거짓말을 해서 6년 전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기에 다시 그 죄를 가리고자 합니다. 이수의 죄는 중대범죄이기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 변호사의 입장         | 재판장님, 이수는 사건 당시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 일은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잘못이 아닌 사고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수가 사건이 종결되고 6년이 지난 지금 자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수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배심원의 평결(의견) |                                      |                                      |
|-------------|--------------------------------------|--------------------------------------|
| 선택          | <input type="checkbox"/> ‘이수’는 유죄이다. | <input type="checkbox"/> ‘이수’는 무죄이다. |
| 이유          |                                      |                                      |